



## 국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 문체부, 국악계 원로·중진 등 인사 만나 국립국악원장 임명 등 국악계 현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악계 원로와 중진 인사들을 만나 최근 국립국악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와의 간담회(3. 14.) 이후 국악계 원로·중진들(3. 24., 3. 28., 3. 31., 4. 1.)과의 간담회까지 총 6차례, 국립국악원 직·단원들과의 2차례 간담회(3. 11., 3. 24.)를 진행했다.

- \* 국악계(25명), 국립국악원 직·단원(24명) 대상 간담회로,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참석자 성명은 미공개함.
- \* 총 8회 중 6회를(5회 국악계 원로/중진, 1회 국립국악원 직단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였으며, 3.31.에 2회 진행함.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 전임 국악연구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립국악원장은 상징적인 자리로서 존경받는 국악계 출신이 말아야 하며, 국악계 출신 원장의 부족한 행정·경영 능력은 행정직 국장, 과장 등이 보완하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국악계 외연 확장할 중요한 시기, 역량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와야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간담회에서 많은 원로·중진들은 국악 발전과 국립국악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능력이 있는 인사가 국립국악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국립국악원 지역 분원이 확대되고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정책·행정 등에 경험이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원장으로 와서 국립국악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예술경영에 역량 있는 분들이 와야 한다. 다만 국립

국악원장 자리는 국악계에 상징적이므로 역량 있는 전공자가 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장관이 다양한 국악 분야 중 민속악, 연희 등 평소 주목받지 못한 분야의 목소리까지 들어줘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출신과 상관없이 국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악진흥법」상 ‘국악’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을 포괄하고, 국악의 범위가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며, 국악 한류 확산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는 “현재의 논란은 시대 흐름에 따른 국악 생태계의 변화에 수반되는 진통으로, 국악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침묵하는 다수 의견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국립국악원 국악 연주단에 이미 역량 있는 예술감독들이 존재하므로, 국립국악원장직에 반드시 국악 실기인이 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국악계 발전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려는 만큼, 좋은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금은 ‘국악의 날’과 ‘국악진흥기본계획’ 등에 힘써야 할 중요한 시기다. 국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국악계 역량이 결집하길 희망한다.”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기관장이 누구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립국악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적과 “인구 소멸, 국악인 소멸 등의 상황에서 청년 국악인 육성 방안을 더욱 고민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 국악 발전 위한 정책 시행,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 마련

문체부는 지난해 「국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국립국악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악원 내 고위공무원 직위의 개방

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개편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립국악원장(고위 공무원 가등급) 직위를 경력개방형(공직 외부 대상)에서 개방형(공직 내부와 외부 대상) 직위로 바꾸었고, 올해 2월 국악연구실장(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를 공직 내부 승진으로 운영해온 자을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공직 내부와 외부 대상)로 개편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로 추진해 온 기획운영단장 직위의 복수직렬화 개편(일반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립국악원의 지역 분원 확대, 연구 기능 강화,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규 법정 과제 증가 등으로 역량 있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립국악원 고위공무원직위의 응시 기회를 대내외적으로 확대하려는 조치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시행('24년 7월)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국악 활성화와 국악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월 17일 국악진흥기본계획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악계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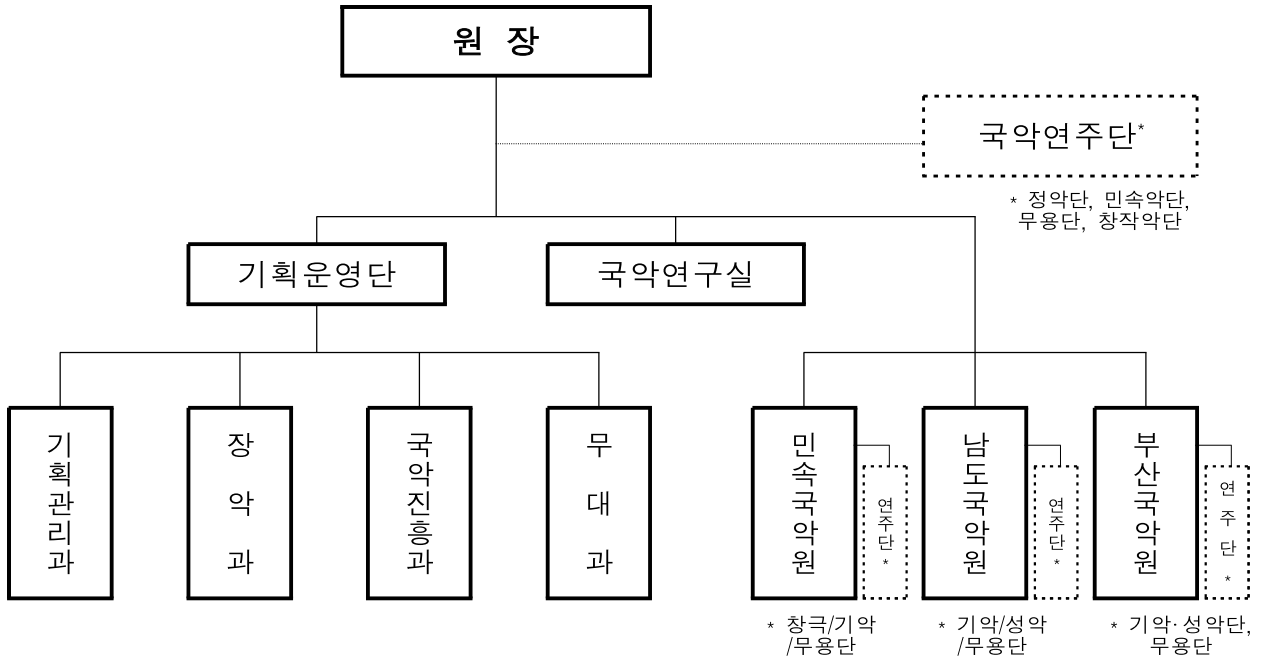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립국악원장 관련 현안을 계기로 여러 장르의 국악인분들과 만나 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컸다. 국립국악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국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국악진흥법」 제정 이후 ‘국악의 날’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국악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국악계의 힘을 결집하고 국악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정책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국립국악원 조직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2734)



□ 국립국악원 전체 조직도



※ 강원분원, 서산분원 추가건립 검토중